

발간 등록번호
76-901000-000008-06

2008 **2** 제180호(통권 399호)

장학월보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웁시다 / 교육감

나눔정보연구회

장학특집 - 학력향상

전문가 초대석 / 교사 체벌에 대한 법률적 검토



경상남도교육청
GYEONGSANGNAM-DO OFFICE OF EDUCATION

장/학/갤/러/리



그네를 타는 시간

몸을 앞으로 밀자
저쪽에서 아이가
미끄럼틀 계단을 오르고 있다

스르르 힘을 놓아버리자
이쪽에서 노인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아이도 늙은이도 아닌
내 사십대가
어느 날 그네에 앉아

이쪽저쪽
시간을 기웃거리다보면
한 순간,

놀이터에는
아이도 노인도
나도 없는, 그런



-
- 글 : 오인태 (진주 도동초등학교 교사)
 - 사진 : 박홍조 (진주 정촌초등학교 교사)

권두언 >>



교육의 본질을



존경하는 경남교육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경남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육가족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힘들고 지친다고 돌아설 수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길입니다.

경남교육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 저는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는 교육에 힘쓸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근본이며,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학생과 교사는 모든 교육의 중심점에 있기에 분청과 지역청과 직속기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이 학교를 향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생기가 넘쳐나야 합니다. 학교의 생기는 교육 활동 속에 참됨과 착함과 아름다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경남교육은

바로 세웁시다

참된 학문을 추구하면서 착한 인성과 청춘의 활기찬 꿈을 다지는 학교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교육 정책들이 열린 경로를 통해 제대로 채택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맑고 깨끗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는 환한 웃음을, 교사들에게는 스승의 이름표를, 학부모님들에게는 희망찬 미래를 찾아드릴 것입니다.

경남교육가족 여러분, 학교는 자아의 고향입니다. 학생들이 다닌 학교는 평생 동안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 함께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하여 정말 새로운 깨침을 얻고, 올바른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희망을 찾고,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 2. 1

경상남도교육감 

2008년도 경남교육 기본 방향

교육 지표

능력있고 창의적인 세계시민 육성



교육 시책

- 학생이 행복한 교육 -

-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인간 교육
-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인재 교육
- 지식강국 기반을 다지는 정보화 교육
- 도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교육 행정



역점 과제

- 인격을 존중하는 생활지도
- 체험중심의 친환경교육
- 독서·논술교육 강화
- 창의성교육 강화
- 무상교육 지원 확대

2008 **2** 제180호(통권 399호)

The Gyeongnam Supervisory Bulletin

차례

- 1 장학갤러리
 - 그네를 타는 시간 / 오인태·박홍조
- 2 권두언
 -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웁시다 / 교육감
- 6 기획시리즈
 - 나눔정보연구회 / 이현철
- 10 **장학특집** 학력 향상
(기초·기본 학력)
 - 학력 관련 변인과 교수 전략 / 권요한
 - 초등학생의 학력 향상 / 심광보
 - 학습부진학생지도를 위한 맞춤형 학습/ 변은정
 -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의 신장 / 문해룡
 - 효율적인 주일수업제 운영을 통한 교과학습부진학생 학습능력 신장/ 박종석
- 32 전문가 초대석
 - 교사 체벌에 대한 법률적 검토 / 김현규
 - 교원의 정신건강(2) / 이재경
- 37 수업기술 나누기
 -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 김연희
- 39 교육정보
 - 협동학습으로 우리 수업을 개혁한다 / 인성진
 - 방과후학교 운영 확산의 해 / 김옥신
- 44 현장포커스
 - 스스로 만들어가는 나의 미래 / 온도석
- 50 참여마당
 - 교원 마당 - 변화하는 시대에 준비와 대책을 / 정호중
 - 학부모 마당 - 별을 품은 한별 / 김나영
 - 학생 마당 - 어설픈 꼬마 이순신 / 장수원
- 55 향기나는 서가
 - 몰입 외 3편
- 57 교원지상갤러리
 - 언제부턴가 쏠에 집착한다 / 이경애

▶ 표지 사진 / 경남교육정보연구원 연구사 김동수

장학월보는 교육공동체와 함께한 교육 전문지로서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소망합니다.

※ 보내실 곳 : 641-719 창원시 중앙로 149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학담당)
장학월보 담당자 앞
이메일:janghak@gnedu.net

2008년 2월 1일 발행

- 발행인 : 경상남도교육감 권정호
- 총괄기획 : 장학담당장학관 임성택
- 편집주간 : 초등교육과 장학사 심광보
- 편집위원 : 김만호 이병만 박성년 전미화
- 인쇄 : 문성인쇄사 (055) 282-9922

교원자생연구단체 들여다보기

나눔 정보연구회



이 현 철

창원 신월초등학교 교사
(나눔정보연구회장)

■ 나눔 태어나다

나눔정보연구회는 학교 교육 정보화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부단히 연구하고 지속적인 연수 활동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실력 향상을 꾀하며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웹 자료 제작·공개 등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1998년에 창립되었다. 그 후 교수용 웹자료 스토리보드 개발, ICT 활용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교원정보활용인증시험 실기동영상 강의자료 개발 등 보다 나은 정보화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창원, 김해, 마산 등 정보화 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정규회원 38명의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

■ 열정으로 일구다

프로젝트를 맡으면 수차례의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각자의 역할분담이 이뤄진다. 특정한 한 개인이 뛰어나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개인과 개인이지만 서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마다 그들은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다. e-Learning 학습용 동영상 콘텐츠(오카리나, 단소)를 촬영할 때는 연주자 선생님, 여러 회원들간의 땀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다. 스토리보드와 시나리오 제작에서부터 촬영 및 편집에 이르기까지 서로 격려하는 등 함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모두가 긴장 속에서 촬영하고 다시 검사하고 또 재촬영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고 나서야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날들, 또 밤이 무색할 정도로 늦은 시각까지 동영상 편집에 임하던 날들이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본 연구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이다.

가. 2005년도 주요 활동 내용

- 1) 경상남도 지역특화사업 대도시형 콘텐츠 개발(6학년 사회)
- 2) 교수·학습 자료 제작을 위한 ICT 저작 도구 동영상 강의 자료 개발
- 3) 신 정보와 생활 재량활동 인정도서 개발 참여 및 동영상 강의 제작



나. 2006년도 주요 활동 내용

- 1) 바른손 하얀마음 (경상남도 교육청 부패방지·청렴교육 지도 웹자료)
- 2) e-Learning 학습용 콘텐츠 제작(오카리나, 단소)
- 3) 2006년 교원정보활용인증시험 실기동영상 강의자료 개발
- 4) 사이버교사 활동 및 지원(전국 사이버 현장지원단 및 새미학습, 창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

바른손 하얀마음	e-Learning 학습용 콘텐츠	교원정보활용인증시험 실기동영상

다. 2007년도 주요 활동 내용

- 1) 새미학습활용 안내 동영상 자료 개발
- 2) 사이버교사 활동 및 지원활동
- 3) 2007년 교원정보활용인증시험 실기동영상 강의자료 개발



■ 동계 워크숍을 가다

해마다 새로운 겨울이 찾아오면 설렘에 벅차게 된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고 반성하여 새로운 내일을 맞기 위한 동계 워크숍을 가기 때문이다. 지난 일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며 차기 일정에 반영할 것을 정하기도 하고 평소 하지 못했던 속내를 슬쩍 내보이기도 한다.

또 특 터놓고 부대끼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다보면 같이 가고 있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임을 느낀다. 바로 그것이 나눔의 동력이 되는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다.



2005년 제주도 워크숍



2006년 중국 워크숍



2007년 일본 워크숍

■ 내 맘대로 「나눔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나눔정보연구회는 컴퓨터 전문가들만 있다면서요?

처음 나눔정보연구회에 발을 들였을 때의 나를 비롯하여 지금까지도 여러 지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똑같은 신발을 생쥐가 신었을 때는 너무 크지만 곰이 신으면 아주 작은 것처럼 상대적인 질문이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컴퓨터 작업에 능하고 노련한 것이 나눔회원의 충분조건일 수는 있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당구풍월(堂狗風月)'이라고 연구회 내에서 보고 듣는 것이 그러하고 스스로 발전하고 날마다 새로 태어나기 위해 배움과 연찬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 '모른다'가 아

나라 '배움으로 채우고 몸으로 부딪혀 깨친다'로 기반을 만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회는 전문 강사를 초빙한 PHP홈페이지 제작 관련 자체연수를 비롯하여 개인의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연수(포토샵, 플래시 활용, 동영상편집연수 등)를 공식적으로 전방 지원하고 있으며 개인 연구를 권장하고 있다.

2. '나눔정보연구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본 연구회는 교원자생연구단체로서 여러 선생님들에게는 아마도 「교원정보활용능력 실기 동영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다. 교원정보활용능력 실기 시험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개인 연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한글, 엑셀, 나모 웹에디터, 파워포인트, 윈도우와 관련하여 출제된 모든 문항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본 회 홈페이지에 탑재하였으며, 2004, 2006, 2007년 교원정보활용인증시험 동영상 강의 제작을 통하여 총 조회수 8만 4천 여회, 총 다운로드 수 8만 여회에 이를 만큼 많은 선생님들의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 미래를 말하다

지속적인 여러 가지 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하여 교사와 함께 숨쉬고 끊임없이 연찬하는 연구회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는 연구 단체로 여러 사람을 위해 방법을 찾고 안내하며 공유하는 자생 단체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다. 또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유기체로서의 연구회를 재조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안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개척해가는 내일의 연구회를 꿈꾼다.

(나눔정보연구회 <http://nanum.guedu.net>)



학력 관련 변인과 교수 전략



권요한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1. 학력 실태

현대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객관주의에서 주관주의로 그 중심이 이동하면서 교육에서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사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교수(teaching)중심에서 학습(learning)과 탐구 중심으로 그 강조점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6차 교육과정부터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구성주의 교육관을 수업에 도입하게 되었다. 구성주의 교육관은 교육자치와 상승작용하여 학교교육과정, 학습수준교육과정을 생성하게 하였고,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개별화를 촉진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의 변화는 미미하며, 평등주의 교육관과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은 하향평준화되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 이전에 학력을 전제로 한 새로운 반성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새정부에서는 교육의 실용성, 과학성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키는데 우선목표를 두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교육에 대한 투자는 높은데 비해 그 효과는 낮으며, 학교나 가정 모두 길러야 할 인간상 보다는 신분상승의 효과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시간량에 시달리고 있고, 교육의 대상은 일부 상위학생들에 맞추어져 있어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기본 학력의 결핍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애로가 많으며, 교사들은 학습 경영에 관계되는 일보다도 학급경영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한다.

학생들의 학력은 이들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길러야 할 인간상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교육,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새로운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미래의 학습 사회에서는 환경변인이나 교수변인에 비해 학습자변인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 학력과 관련된 변인을 살펴보고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전략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학력 관련 변인

학력 관련 변인은 크게 환경변인, 학습자변인, 교수변인, 과제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변인에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이 있고, 학습자변인에는 지적 출발점행동과 정의적 출발점행동이 있다.

1) 환경 변인

먼저, 가정환경변인과 아동의 학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자의 학력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힘은 근본적으로 유전과 환경이다. 유전적 형질이 미치는 영향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약조건이며, 교육적 환경은 주어진 제약 조건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프로메테우스적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은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지위로서의 환경, 한 개인이 지각한 β 환경, 실제 현존하는 압력과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작용환경인 α 환경으로 개념화해 볼 수 있다.

환경 중에서 학습자의 지적 행동 및 정의적 특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환경이다. 가정환경 중에도 가정의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환경보다 상호작용환경 변인이 가장 중요한 가정환경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Wolf는 가정의 작용변인(성취압력, 언어발달을 위한 압력, 일반 학습을 위한 준비)이 아동의 지능변량을 56% 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했으며, Marjoribanks는 가정의 작용환경(성취압력, 활동압력, 지적능력, 독립성압력, 국어압력, 외국어압력, 아버지의 지배성, 어머니의 지배성)이 아동의 언어요인변량을 50%, 수요인변량을 50%정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작용환경과 아동의 정의적 특성과의 관계를 밝힌 Keeves와 Weiss의 연구에 의하면 작용변인이 아동의 성취동기, 자아존중, 교과에 대한 태도에 적어도 25~30%정도의 변량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의 작용변인은 물리적 환경, 지위환경보다 아동의 지적·정의적 특성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환경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한 학교나 교육청의 지원이 요청된다.

다음은 학교 및 학급 환경변인과 학습자의 학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교 및 학급환경에는 집단규범, 학교(급)문화, 또래집단의 성질, 조직분위기, 압력의 질 등이 포함된다. 이 환경은 앞에서 살펴 본 가정환경변인과 뒤에서 다룰 사회환경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자의 지적·정의적 출발점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 및 학급환경은 가정환경보다 학습자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학교 및 학급환경을 단순히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심리적 환경으로 개념화한다면 학교 및 학급의 풍토변인(학문적 경쟁, 지성에 대한 지각, 지적 업적성 강조, 과학성 강조, 수월성 강조, 학습지향학생지위체제 등)은 학생의 진학 및 수학성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McDill과 Rigsby은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학력은 학교의 사회적 지위요인(시설, 위치, 규모

등)이나 학급당 학생수, 능력별 반편성, 교사대우, 학생의 교육비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학문적 경쟁, 지성주의, 교과목능력 등이 강조되고, 교사와 학생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학교 풍토가 마련될 때, 학력이 향상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및 학급환경은 친밀성, 만족성, 민주성 등 긍정적인 풍토를 최대화하고 속도, 마찰, 편애, 파장, 무질서, 무관심 등 부정적인 풍토를 최소화 함으로써 학력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과 학습자의 학력과의 관계는 보다 복잡하다. 학습 환경을 가정과 학교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지만 여기에 제한하지 않고 국가사회적 규모 그리고 학습자의 성적에 관련되는 변인도 다변인으로 확대하고, 시간적 간격도 평생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학력의 개념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다 넓은 뜻에서의 환경변인으로서의 사회문화는 사회계층, 사회적지위, 사회구조, 문화규범, 역할기대, 보상체계 등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며, 가정이나 학교·학급 환경의 주변요인으로서 이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학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학습사회 건설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2) 학습자 변인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은 크게 지적 출발점행동과 정의적 출발점행동 그리고 학습전략기술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들은 보다 먼 과거 환경인 가정환경, 학교 및 학급 환경, 사회환경에 의해 특징 지워지며, 현시점에서의 교수변인 및 과제변인과 함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적 출발점행동에는 선행학습수준, 서열, 지적 성취경험, 일반지능, 적성, 인지유형, 지각유형 등이 포함되며, 정의적 출발점행동에는 흥미, 태도, 자아개념, 동기, 정신건강 등이 포함된다.

먼저, 지적 출발점행동은 학습하려는 특정학습과제의 성질과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일반 지적 출발점행동과 준일반 지적 출발점행동, 특수 지적 출발점행동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일반 지적 출발점행동은 학습하려는 특정 과제와의 유기적 관련이 적은 경우로서 지능, 적성, 인지유형, 언어능력 등이 이 범주에 가까운 지적행동이며, 거의 모든 교과목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화된 지적능력이다. 이것은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의 초기에 일찍 형성되는 능력이다. 지능은 학업성적에 대해 약 30% 정도의 변량을 갖고 있으며, 언어능력은 약 25%의 변량을 갖고 있다. 특수 지적 출발점행동은 학습하려는 학습과제와 밀접히 관련된 선수학습능력으로 흔히 선수학습정도라고 할 수 있다. 특수 지적 출발점행동은 학업성적에 대해 약 65%정도의 변량을 갖고 있다. 준일반 지적 출발점행동은 지능처럼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교과목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에 독해력과 수학능력 등이 있다. 이들은 학업성적에 대해 약 50%정도의 변량을 갖고 있다. 선수학습과 같은 특수 지적 출발점행동은 일반 지적 출발점행동이나 준일반 지적 출발점행동에 비해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변화가능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학습위계 구조가 뚜렷한 교과목일수록 선수학습이 필요조건임을 감안해 볼 때, 선수학습의 보충과 이에 적응하는 교수전략이 학력 향상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다음, 정의적 출발점행동은 지적 출발점행동보다 개념화하기 어려운 복합개념으로 한 학습과제를 학습하려고 할 상태 이전에 형성된 개인의 정의적 특성을 지칭한다. 흔히 흥미, 태도, 자아개념의 복합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정의적 출발점행동도 그것이 학습과제와 얼마나 직접적 관련이 있는가에 따라 일반 정의적행동, 준일반 정의적행동, 특수 정의적행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정의적 출발점행동은 전체 성적 변량의 25%정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일반 정의적 출발점행동에 비해 특수 정의적 출발점행동이 성적 변량을 더

높게 예언한다. 예컨대 일반자아개념과 성적과의 상관은 $\cdot 30$ 인데 비해 특정교과목에 대한 자아개념과 성적과의 상관은 $\cdot 50$ 이다. 따라서 특정교과목에 관련된 흥미, 태도, 자아개념은 단기간의 노력에 의해 쉽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기회를 증진시킴으로써 학업성적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특수 정의적 행동 변인을 통제해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전략기술은 학습자가 특정한 학습 자료의 이해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그의 정의적 출발점행동이나 지적 출발점행동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여기에는 학습방법, 공부기술, 학습전략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능동적인 학습의 효율성과 학업성적과의 상관은 $\cdot 43 \sim \cdot 84$ 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수업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질문하고 반응하는 학생이 가장 학습을 잘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학습전략 기술로 자기점검, 자기교정기술이나, 공부기술로 학습시간활용기술, 수업준비기술, 질문에 답하는 기술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못한 학습장애학생이나 학습부진학생에 비해 높은 학업성적을 나타낸다.

3) 교수 변인

교수의 질이 학습과제에서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변인보다 직접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현행 교수 체제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교수목표, 교수방법, 진도, 매체를 제공하면서 학습효과를 동일하게 기대하는 것이 문제이며, 또한 학생 개인의 선행학습 보유 여부와 그에 대한 보충방법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강구되어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이것은 다인수 학급 속에서 교사가 하는 일이란 학습경영 보다는 학생경영, 학급경영에 그 시간과 노력을 대부분 투입해 왔기 때문이다.

교수과정을 거시적 접근방법, 예컨대 교사행동의 유형에 따라 강의법, 토의법, 발견법 혹은 민주적 교수법, 전제적 교수법, 방임적 교수법 등으로 개념화하든, 미시적 접근방법, 예컨대 교수과정에서 학생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교수변인 확인으로 개념화하든, 교수변인을 적절히 통제하고 학습자변인과 과제변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적응을 극대화함으로써 학습경영효과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Dollard와 Miller는 교수학습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변인으로 동인(drive), 단서(cues), 참여(participation) 혹은 연습(practice), 보상(reward)의 네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변인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첫 번째 변인인 동인은 학생으로 하여금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는 자극을 말한다. 학업성취와 관련된 동인은 주로 심리적, 사회적 욕구로서 승인욕구, 성취욕구, 만족욕구, 애정욕구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같은 동인은 지적 출발점행동이나 정의적 출발점행동과 관련되어 학습과제 해결에 작용하게 된다. 두 번째 변인인 단서는 교수의 질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지시하고 암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학생은 이 단서를 통해 언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단서의 효과는 다양화에 있다. 어떤 학생은 인쇄물, 또 어떤 학생은 구두나 시범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단서는 원칙적으로 개별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교수변인은 참여 혹은 연습이다. 학생의 성취정도는 학습하려는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응하느냐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참여에는 손을 든다든가, 경청한다든가 질문하는 것과 같은 외현적 참여도 있고, 학습과제와 관련해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사고를 하는 것과 같은 내재적 참여도 있다. 일반적으로 수업시에는 내재적 참여가 더 빈도도 잦고 중요도도 높다. 참여의 효과는 연습을 통해 전이효과를 증진시키며, 전

이효과를 높이는 학습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 발견학습의 중심 가치이기도 하다. 통상 수업에의 참여 정도와 성적과의 상관성이 약 5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업의 질 개선은 교수변인에서의 참여·연습 변인을 얼마나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번째 변인은 보상이다. 우리의 학교교육은 보상(강화)에 인색하다. 학습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주어진 단서에 적절히 반응하도록 동기화된 학습자라 하더라도 이 동기가 수업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느냐의 여부는 보상여부에 의존한다.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학습자의 반응은 곧 소멸되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학습자로부터 기대되는 반응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자극유형(동인과 단서)과 반응사이의 관련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강화 절차를 적절히 마련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상에서 살펴 본 네 가지 교수변인은 Bloom의 추계에 의하면 학생의 성적변량의 약 20~25%를 결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영향력은 표준적 수업, 단일적 학습지도법, 획일적 교수법, 교수특성(경험, 경력, 성격, 지식정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과정에 개재하는 변인(위의 네 가지 교수변인)이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또 그 변인이 학생의 개인차에 어느 정도 적응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4) 과제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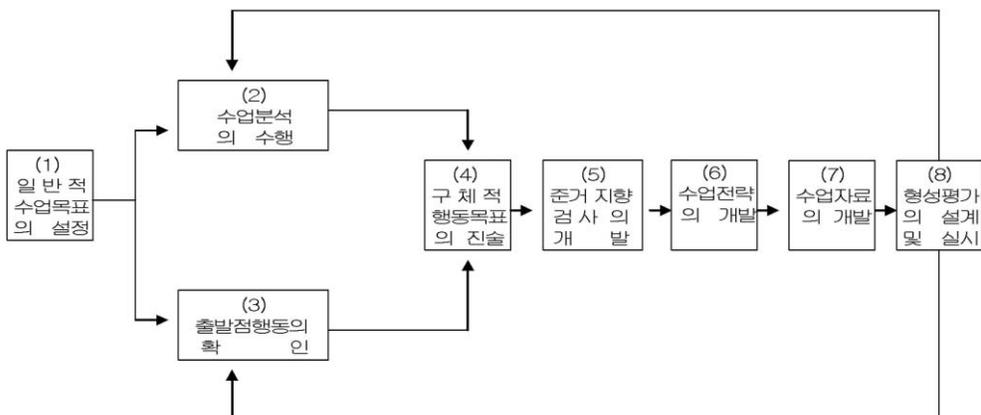
과제 변인은 교수목표 변인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수업의 전체과정을 특징지우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교육과정, 내용을 채택해야 할지, 어떤 수업자료를 투입해야 할지에 대한 준거점이 된다. 특히 학습과제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요구되는 학습자 변인(즉, 선수학습정도, 독해력, 인지유형, 적성 등의 지적 출발점행동과 흥미, 태도, 자아개념 등 정의적 출발점행동, 그리고 학습전략)과 교수변인(즉, 단서, 참여와 연습, 동인,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과제 변인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요소이다.

과제 변인에 따라 학습자 변인이나 교수 변인이 통제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학습자 변인에 따라 과제 변인을 통제하거나 적응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학습자 변인에 따라 교수 변인을 적응시키고자 하는 모형을 적성-처치 상호작용모형이라고 한다면, 학습과제나 목표 변인에 따라 학습자 변인 및 교수 변인을 통제하거나 적응시키고자 하는 모형은 과제-적성-처치 상호작용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 변인에 따라 과제 변인을 통제하거나 적응시키고자 하는 모형을 개별화교육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과제나 학습목표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한 일차된 견해는 아직 없다. 과제나 목표가 어떻게 진술되어야 하는지, 교수-학습과정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원천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은 뜨겁다. 과제나 목표를 분류학적 체계에 의해 세분화하고 진술하려는 접근(Bloom)이 있는가 하면, 과학적 조작주의를 표방하는 접근(Mager), 학습과제 요소를 학습위계 이론에 기초해 하향방향으로 분석해 가려는 접근(Gagné), 인지과정이나 인지전략을 강조하는 탐구학습 접근(Bruner)도 있다. 이들은 각각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에 주는 시사점이 다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경험적 노력이 요구된다.

3. 교수 전략

학습자의 학력에 관련된 변인은 보다 먼 과거의 환경변인으로서 가정환경, 학교 및 학습환경, 사회환경이 있고, 과거의 학습자 변인으로서 지적 출발점행동과 정의적 출발점행동, 학습전략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보다 먼 과거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에 의해 형성된 과거의 학습자 변인은 그 중 지적 출발점행동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변량이 약 50%, 정의적 출발점행동이 약 25%이며, 현재의 교수 변인(과제변인포함)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변량이 약 25%정도이다. Bloom은 이들 세 가지 변인이 합해서 학업성취도에 나타나는 변량의 약 90%정도를 예언한다고 한다. 이들 변인들을 적절히 통제하기만 하면 처음에 나타나는 성적변량을 10%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 즉, 학교학습에서 이 같은 세 가지 변인을 적절히 적용한 교수방법을 채택한다면 성취수준에 도달하는 학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이다. 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은 학습자 변인 즉 지적 출발점행동과 정의적 출발점행동 자체를 육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학습자 변인과 교수 변인 및 과제 변인을 적절히 상호 적응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교수전략은 모든 학습자가 개인간차와 개인내차를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비로소 그 의의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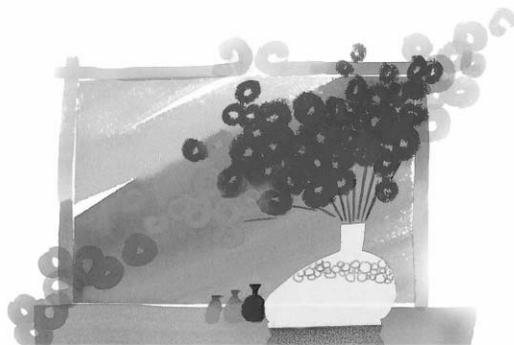
개인차 현상을 수업시 갈등요인으로 지각하지 않고 학습효과 증진을 위한 단서요인으로 이해할 때 교수 전략은 학력증진을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학습자 변인과 교수 변인을 상호적응시키는 방법은 교육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즉, (1) 과제(목표) 변인은 고정시켜 놓고 학습자 변인과 교수 변인을 상호적응시키는 방법, (2) 학습자변인은 고정시켜 놓고 과제(목표)변인과 교수변인을 상호적응시키는 방법, (3) 과제(목표) 변인과 학습자 변인과 교수 변인을 상호적응시키는 방법이 그것이다. 교수전략모형 가운데 ① 적성-처치 상호작용모형(ATI: aptitude treatment interaction, TTI: traits treatment interaction) ② 개별화교육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③ 과제-학습자특성-처치 상호작용모형(TTTI: task traits treatment interaction)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ATI나 TTI모형은 일반적 수업 상황에서의 표준수업에 적합하고, IEP는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수업 그리고 학습부진아수업 상황에서의 개별교수에 적합하며, TTTI모형은 일반적 수업상황에서 체제적 접근시 즉 수업공학이나 수업설계시 적합하다. 참고로, 수업설계를 위한 Dick의 체제접근모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이 가지는 의도성과 계획성을 극대화하려면, 과제변인이나 교수변인을 적절히 통제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 때는 학교가 공급자중심, 교사중심, 교수중심의 특성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래사회는 평생학습 사회로 열려갈 것이다. 이 때에는 과제 변인이나 교수 변인보다는 학습자 변인,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사회 등 환경 변인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고, 학교는 수요자중심, 학생중심, 학습중심의 특성을 갖게 될 것이다. 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확대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기초·기본학력 그리고 출발점행동이나 학습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이다. 학생의 학력도 그리고 이를 위한 교수전략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요한 외 (1998), 수업설계의 원리, 서울 : 교육과학사.
권요한 외 (1996), 수업이론입문, 서울 : 배영사.
박성익 (2004), 교수-학습방법의 이론과 실제 (Ⅱ), 서울 : 교육과학사.
이성호 (2000), 교수방법의 탐구, 서울 : 양서원.
정범모 외 (1998), 학업성취의 요인, 서울 : 교육출판사.
황정규 (2002), 학교학습과 교육평가, 서울 : 교육과학사.
Orlich, D.C. (1999), Teaching strategies, Lexington : D.C. Heath and Co.



초등학생의 학력 향상

심 광 보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I. 들어가기

학력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강조되고 소중히 다루어져 온 가치이다. 학력을 개인적인 사회적 신분 상승이나 성공의 수단으로 여겼고, 국가 발전의 토대라고 믿었기 때문에 학력향상에 대한 관심은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공통관심사로 부각되어 있다.

학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 학력향상 방안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다. 학력은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얻게 되는 지식, 기능, 태도,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능력과 성향을 일컫는다고 말할 때, 학력은 학습의 결과이며 교육 목표의 달성도로서 학습을 통해 습득한 교과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의 지적 능력과 성취동기, 호기심, 자기관리 능력 등의 정의적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기울여야 할 책무성을 안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학력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그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인별 학업성취 목표관리제, 초·중·고 학업성취도와 학력평가 확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는 시·도 교육청이 늘어나고 있다.

II. 초등학생 학력 향상 방향

학생들의 학력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효과적으로 높일 수는 없다. 교육 행정기관, 학교, 학부모, 교육공동

체 모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통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우리 교육계가 힘쓰고 있는 내용과 방향을 포함하여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노력해야 할 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기초·기본 학력 정착에 노력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에서도 기본방향, 추구하는 인간상, 구성 방침 등에서 기초·기본교육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기본 학력의 충실을 요구하고 있다. 기초·기본학력 정착과 관련한 학력향상을 교육시책이나 정책방향에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입장으로 보아도 학력향상은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과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교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수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 학력저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초·기본 학력은 학생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 추구권의 입장, 보다 높은 단계의 학습을 위한 도구적인 성격 등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기초·기본 학력 정착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학교에서는 책무성을 갖고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2.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학교 수업에서 예전에 비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낮아져 적절한 강화요인 없이는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교육 행정기관이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해결 방법 모색에 부심하고 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서는 학습자가 장애에 어떠한 변화에 직면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받아들이며 다양하고 생소한 문제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기학습력의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즉, 지식 정보화 사회는 자기학습력의 밑바탕 위에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므로 오늘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학력 중의 하나이다.

3. 학력 향상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학력 향상의 요인은 실로 다양하다 할 수 있다. 학력에 미치는 요인은 크게 학습자 요인, 수업 요인, 환경 요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학습자 요인만 보더라도 학습자의 건강에서부터 지능이나 적성과 흥미 같은 능력뿐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과 태도,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수업 요인에도 수업의 질, 교사의 자질, 교사의 능력, 교수·학습의 형태, 수업의 분위기 등 무수히 많고, 환경 요인에도 가정의 경제적 수준, 지역의 시설, 학교의 시설 등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은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수업을 직접 담당하고 교육활동을 가장 많이 직접 펼치는 일선 교사들의 의지와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4. 학교 실정에 적합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각 학교가 처한 환경은 제각기 다르다. 필연적으로 야기된 학교와 학생의 개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가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동일한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고 대등한 학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지역별 학교별 학력 격차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학교의 교육수요자들은 각자 처한 교육환경에 불만을 갖고 공교육을 불신하며 사교육 열풍을 낳기도 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는 교사들에 의해 많은 고민과 탐색이 이루어져왔고 학교단위별로도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모색해 오고 있으나, 이 문제는 개인적, 일시적, 산발적인 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각 학교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관찰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처방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학력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접근과 새로운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마다 학력향상 계획은 조금씩 다를 것이며, 투입되는 프로그램이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5. 지적, 정의적 학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지식 정보화시대의 교육에서 교육과정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선형적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으며, 학생들이 재구성한 지식 자체가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처 예상치 못한 다른 어떤 것이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학력은 교과 내용 중심의 지식과 지식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성취 동기를 갖고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의적 능력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식사회에서 교육은 전통적으로 고수했던 정답만을 가르친다거나 지식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문제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지식을 생성하게 하는 교육으로의 탈바꿈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내면적 정서 상태와 흐름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조절하는 힘, 타인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정서적 표현·표출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 끈기있게 추진하는 인내와 추진력과 같은 정의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지식과 지적 능력과 정의적 능력을 고루 갖춘 기본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체제를 정비해야 하며, 이는 공교육으로서의 학교 교육이 제 자리를 찾는 일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지식 내용과 습득 방법이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 자신과 사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지도 학교 교육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6. 학습동기 부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를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결국 학습 동기가 고취되지 않고서는 학력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배우는 즐거움을 체험으로 알도록 하며, 학생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 종합 학습 시간 등을 통해서 아동이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실감할 수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를 추진하며, 장래 아동이 새로운 학습 과제에 창조적으로 임하는 능력과 의욕을 익히도록 한다.

또한, 학습 기회를 충실하게 제공하고, 학습 습관을 익히도록 한다. 방과 후 시간 등을 활용하여 보충 학습을 실시하고, 아침 시간의 독서 등을 추진·장려·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적절한 분량의 과제를 부여하여 가정에서도 학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아동이 학습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7. 교육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적 차원에서 학력 향상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정책은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언적이고 원칙적이며 대의적인 입장에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 정책의 혼란으로 공교육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며, 가까운 일본에서도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여유 있는 학습'에서 '확실한 학력 육성'으로 변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사례 등에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 종합적인 학력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정비
- 학력 향상에 대한 교육청, 학교의 법적 책임감 부여
- 학력 평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 국가적 차원에서의 학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보급
-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 등

나. 시·도 및 지역 교육청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특색 있는 교육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16개 시·도 교육청 마다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 따라 기본 계획의 내용적인 깊이와 방법적인 면에서 다양성과 차이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떤 시·도교육청에서는 기본계획이 매우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된 경우도 있고, 기초학습 부진아 구제 수준의 기본계획에 그치는 시·도교육청도 있다.

- 학력 향상 기본 계획 수립 및 파급
-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개발·보급
- 교육공동체 참여 방안 및 학부모 교육 기회 마련
- 다양한 교사 연수 기회 마련
- 관련 예산 확보 및 제도 마련
- 지원 장학 활동 전개
- 학력 향상 대책반 운영 등

다. 학교

교육 활동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역할은 가장 크고 중요하다. 학력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학교교육계획이 마련되어 전 구성원들이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한다.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맞춤형 학력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하고 학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력관리 시스템을 갖추어 실천해 나가야 한다.

- 특색있고 적합한 학교교육과정 편성
- 기초·기본학력 책임 지도제
-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장 책임 경영제
- 발전적인 학부모 교육 및 동참 유도
-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평가 및 평가 결과 통지 방안 마련
- 관련 예산 편성 및 지원 강화

라. 교사

- 전문성 신장 자기 연찬
- 구체적인 학력 향상 프로그램의 적용
 - 성취목표 확인 개별 카드 활용
 - 수준별 과제제시, 문제노트 제작 활용
 - 수업노트 작성
 - 학생, 교사, 학부모 멘토링제 운영 등
- 동료장학, 자기장학 활동
- 평가 기준안 및 도구, 결과 피드백
- 학년별 기본기능 이수제 운영
- 우리 고장 사랑하기 프로젝트 적용
- 상담활동,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
- 나의 성장록 전시회 개최 등

Ⅲ. 나오며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이는 결코 어느 한 기관이나 집단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학력 저하의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처방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편협적인 대책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계의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노력과 사회전반의 분위기도 새로운 학력관에 맞게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학력관에 적합하게 교육받은 사람이 사회에서 저마다 능력을 발휘하고 대우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안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맞춤식 학습

변은정

마산 내서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제7차 교육과정은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흥미와 욕구를 갖도록 하는 이른바 수준별 교육과정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 사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진도 및 성취 수준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개별화 지도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고 평균 수준에 맞춘 획일적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교는 학습부진학생의 판별 및 부진 영역에 따른 다양한 요인 분석을 통해 학습부진학생 개인별 특성과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와 지도법을 활용하는 맞춤식 학습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여 읽기, 쓰기, 셈하기의 기초를 갖추고 해당 학년의 교과학습에 기본학습요소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2.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작은 노력들

가. 학습부진학생 판별 및 개인별 부진요인 분석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학습부진학생' 인지 정확하게 판별하여야 한다. 학급내의 학생 중에서 일반 능력 수준이 떨어지는 '학습 지진아' 발생원천에 따른 개념 구분으로 '학습장애아' 그리고 학습 성취수준에 따른 '학습저성취 학생'에 대한 개념혼란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습부진학생 판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판별도구로 기초학습부진학생은 교육과정 평가원의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

력 진단평가를 활용하였고, 교과학습부진학생은 학습부진의 정도 차이가 심하고 그 원인도 다양하여 전학년 및 전 학기의 학습수준은 교육과정 평가원의 진단배치검사와 확인평가를 활용하였고, 당해 학년의 교과학습수준은 본교에서 자체 제작한 국어과 수학과 단원별학력평가(지필평가)를 근거로 관별하되 수행평가와 학습태도, 학습능력 등 담임교사의 종합적인 관찰을 토대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

학습부진학생으로 파악된 학생들의 지적·신체 장애, 가정환경 조사, 지속적인 행동관찰, 상담을 통해서 학습부진의 원인분석에 노력하였고, 특히 기초학습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적성연구소에서 개발한 지능검사(지능·학습효율성)를 실시하여 언어·언어추리력, 수 계산·논리력, 연역논리력, 조형지각력, 도형 분별력뿐 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 정도 등을 측정하였고, 수집된 정보는 개인별 학습부진요인 분석표로 작성함으로써 개별 맞춤형 학습지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나. 학습부진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적용 및 지도

연구 개발된 학습부진학생 지도자료 및 프로그램을 수집 분석하여 본교 기초학습부진학생과 교과학습부진학생에게 맞는 『맞춤식 학습 자료』로 재구성하여 기초학습부진학생 보충학습지도와 교과학습부진학생 보충학습지도 자료로 활용하였고, 학습지도의 주된 자료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개인별 특성과 부진영역에 맞는 보조자료를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맞춤식 학습 프로그램』으로 기초학습부진학생은 담당교사를 지정하였고 교과학습부진학생은 담임교사의 책임지도를 방침으로 하였다.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교실로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맞춤공부방’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과 교사 1대 1 개별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담당교사는 부진학생의 부진요인 분석 및 영역 분석에 따른 지도에서부터 학교와 가정생활 상담 및 학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까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멘토로서 학생들이 학습에 자긍심과 열성을 심어 주고자 노력하였고, 기초부진 학생 책임구제 및 지속적인 학습지도를 통해 다시 학습부진학생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과학습부진학생의 보충학습교실로는 ‘우리들의 작은 교실’이란 프로그램으로 교과학습부진학생의 부진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장기 부진학생 및 단기 부진학생으로 구분하고 부진요인 및 영역에 맞는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학습결손 및 오개념 등을 처치하였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년 수준 및 학습자 특성에 맞는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고, 본교 지역 내 학습도우미 교사를 모집하여 방과 후 학습지도에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학습도우미 교사들은 대부분 학부모 또는 대학생들로 낮은 가정 경제력 및 불안정한 가정환경 등으로 사설 학원이나 가정학습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사다리 학습 자료 개발과 활용

자료는 초등학교 1~3학년 국어과 및 수학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국어과 읽기·쓰기 기초학습부진학생의 문자해득과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개발한 『기초학력을 다지는 개별화 지도자료』를 본교 맞춤공부방-기초학습부진학생 보충학습 교실- 학생 지도를 위해 재구성한 자료이다.

〈 국어과 문장 익히기 학습 내용 체계표〉

단계	국어 교육과정	학 습 내 용
가	1학년 1학기 읽기	각 단계별로 1. '임지말+풀이말' 의 문장 읽고 쓰기 2. '부림말+풀이말' 의문장 읽고 쓰기 3. '임지말+부림말+풀이말' 문장 읽고 쓰기 4. '임지말+꾸밈말+풀이말' 문장 읽고 쓰기 5. '꾸밈말+임지말+풀이말' 문장 읽고 쓰기
나	1학년 2학기 읽기	
다	2학년 1학기 읽기	
라	2학년 2학기 읽기	
마	3학년 1학기 읽기	
바	3학년 2학기 읽기	

〈 기초수학(곱셈과 나눗셈) 학습 내용 체계표〉

단계	영역	학 습 내 용	단계	영역	학 습 내 용
1	곱셈	묶어서 세어보기	16	나눗셈	올림이 있는 (세 자리 수)× (한 자리 수)의 계산
2		곱하기 알아보기	17		(두 자리 수)×(두 자리 수)의 계산
3		곱셈식 알아보기	18		똑같이 나누기
4		몇 배의 이해	19		나눗셈의 뜻 알기
5		곱셈식으로 나타내기	20		양을 똑같이 나누기
6		2, 5의 단 곱셈구구	21		나눗셈 식으로 나타내기
7		3, 4의 단 곱셈구구	22		뿔셈을 이용한 나눗셈
8		6의 단 곱셈구구	23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 알아보기
9		7의 단 곱셈구구	24		나눗셈의 몫 알기
10		8의 단 곱셈구구	25		곱셈구구로 나눗셈 몫 알기(1)
11		9의 단 곱셈구구	26		세로셈으로 나타내기
12		곱셈구구 익히기	27		곱셈구구로 나눗셈 몫 알기(2)
13		1, 0의 단 곱셈구구	28		곱셈구구로 나눗셈 몫 알기(3)
14		올림이 없는 (두 자리 수)× (한 자리 수)의 계산	29		곱셈구구로 나눗셈 몫 알기(4)
15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 (한 자리 수)의 계산	30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국어과 읽기·쓰기 기초학습은 문장의 읽기·쓰기 병행 지도가 이루어 질 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문장을 정확하게 발음하여 소리 내어 읽고 난 후 선생님이 불러주는 문장을 잘 듣고 받아쓰기를 하는 활동을 통해 국어기초학력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아가 간단한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알아보며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고 책읽기에 흥미를 갖고 능동적으로 학습 할 수 있다

록 지도하였다.

사다리 학습의 활용은 '가'에서 '바'의 단계로 문장 이해력을 넓혀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장 구성 이해 및 어휘력의 향상을 꾀할 수 있었다. 특히 문장의 구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글의 중심 내용을 찾을 수 있었고, 이는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수학 학습은 학습 원리를 익히고 학습한 내용을 반복 연습을 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곱셈은 곱셈구구를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개념과 원리를 차근차근 학습하고 여러 가지 구체물을 활용하여 곱셈 기본 개념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함께 지도하는 것이 후속 학습에 도움이 되므로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곱셈식을 보고 나눗셈 식을 완성하거나 대응되는 나눗셈 식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지도하였다.

사다리 학습의 단계가 구체물, 반구체물, 영상으로 이루어져 아동이 체계적으로 수 개념과 원리를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곱셈의 단계도 2-5단의 곱셈, 3-4단의 곱셈, 6,7,8,9단의 곱셈, 1-0단의 곱셈 순으로 아동이 쉽게 익힐 수 있었다. 그리고 나눗셈은 포함제와 등분제의 경우를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를 사용하였다.

3. 나오며

학습부진학생의 지도는 아주 치밀하고 정교화 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부진학생은 구제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누가 지도하고, 어떤 자료를 투입하며 어디에서 언제 지도할 것인지, 학생의 정의적인 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치밀한 분석과 계획으로 접근할 때 학습부진학생은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협력과 기대 속에서 믿음을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면 학습부진학생은 완전 구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의 신장



문 해 룡
김해 한얼중학교 교사

진영은 하얀 감꽃과 더불어 계절이 시작되어 주황빛 단감이 영글어 가며 계절이 깊어간다. 이 곳에 위치한 본교는 읍지역의 반농촌으로 학습부진학생들이 많은 편인데 이들 대부분은 결손 가정의 학생들로 환경적 요인의 비중이 크게 차지한다. 이러한 학습부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정도가 심화되고, 교과학습에 대한 장애요소가 되며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부진학생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교육현안이 되었다.

더불어 경남교육위원회에서도 학습부진학생의 증가에 따른 대안을 촉구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교입시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학력신장에 대한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학습에 대한 자아를 정확히 이해하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교육방송과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 흥미유발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적극적인 학습참여 및 원만한 학교생활, 나아가 학생들이 지닌 능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한 자아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므로 학습 흥미 검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였다. 자체 제작한 학습 습관 및 행동검사를 통한 자기 점검과 학습부진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성공하도록 도왔으며 점차 자신의 진로설정까지 겸하게 되었다.

또한 철저한 자기관리가 성공의 지름길이고 자신의 생활을 과학적으로 계획하는 기술은 자기주도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초이다.

따라서 학교 공부에 자신감을 얻고자 한다면 생활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취지 아래 '학습 DIARY'를 제작, 보급하였다. '학습 DIARY'를 작성하면서 학교나 가정에서의 자신의

학습목표와 진학목표를 세워 연간, 월간, 주간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학습 목표달성을 위해 실천하면서 자기 조절학습이 가능하도록 지도하였다. ‘학습 DIARY’는 담임교사와 학부모들이 점검, 지도하였으며 학생들이 지속적인 활용을 하도록 우수기록학생에 대한 시상상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학습 흥미검사 결과와 학습 행동검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특성에 맞는 학습법을 탐색하도록 시중에서 출판된 학습방법에 관한 도서를 구입하여 학습하는 방법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중학생 수준에 적절한 내용을 선정하여 ‘학습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것은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찾고 자신의 학습목표와 장기적으로 인생목표를 설계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뇌 훈련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회를 통하여 자신의 두뇌를 활용한 학습법이 이루어지도록하는 시간도 가졌었다.

다음으로 교과 부진 학생들의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정의적인 면에서 자신감을 길러주며 교사와의 상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것은 학습 부진아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사, 대학생들을 활용한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과 멘토와 멘티의 만남 행사로 이루어졌는데 화기애애하고 조출한 다과회를 곁들여 학습 부진아들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심어주어 학습 활동과 학교생활에 용기를 북돋워 줄 수 있었고, 학생들이 기다리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EBS 교육방송에서 제작, 시판하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DVD를 구입하여 전학년의 적응 활동과 각 교과목의 창의적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수립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학습방법의 학습을 토대로 교과 지도면에서는 먼저 지자체의 학교지원사업의 예산 1500만 원을 지원받고 일인당 연간 3만원의 자기부담을 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의 방과후학교 교과프로그램과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절대적인 학습 시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관심을 학업 수행에 둘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학습풍토 여건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학습풍토 여건 조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교과지도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학습 부진아의 체계적 지도를 위하여 기초학력부진학생 개별도구(평가원)를 통하여 기초·기본 학력 부진학생을 선정한 후 학습을 도와주는 학습 도우미를 지정하여 급우의 학습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읽기와 쓰기는 국어담당교사 중에서 수학은 수학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지도하여 학년말에 모두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에서 구제되었으며 또한 단계별 교과목인 영어와 수학 과목의 정기교사 학업성취도의 하위 20% 학생들에 대한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성취기준·평가기준을 활용하여 본교 실태에 맞는 필수학습 요소위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본교는 반농촌의 읍지역 학교이지만 학교 방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학생들이 교육방송 시간에 활용할 방송학습 기록장은 선행 연구 시범학교의 결과를 토대로 구안,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방송교재는 서점을 이용하여 구입하도록 하고 방송 테이프는 연구학교 운영지원비의 예산으로 학기 단위로 구입하였다.

3채널 방송으로 아침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였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영어,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수학을 진행했는데 아침 교육방송의 운영은 전체적인 학급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므로 우수시청학급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여 방송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담임교사의 현장지도로 인해 생활지도까지 이루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와 함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 수학의 기초·기본학력이 신장되어 사교육비 절감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 교육방송과 오후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기초학습 부진아 수업, 단계형 과목의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다보니 교사들의 학습지도의 과도한 부담과 학생들의 학습시간 부담으로 인해 학년말에는 모두 지치는 표정이 엿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궁극적으로는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관한 관심과 참여 의식으로 고취되었고, 학생들의 기초·기본 학력 신장이 이루어지는 긍정적 효과가 컸음을 알려드리며 각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수정 운영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효율적인 주5일수업제 운영을 통한 교과학습부진학생 학습능력 신장

박 종 석

진해제일고등학교 교사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는 수요자 중심 교육과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지식 기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에서 자율과 특성을 존중하며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으로, 고정 관념과 전례에 집착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국내·외적 변화를 폭넓게 수용하는 개방적 교육으로 인식과 발상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차세대 인간 육성을 위해서는 제7차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여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5일수업제’는 학생들에게 교과 수업에서 벗어나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고, 가족과 지역 사회와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길러주어, 진취적 사고력 및 합리적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평생 교육 체제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의 학생구성은 보통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에는 학력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인접해 있던 하지만 타 지역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대부분 학습의욕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자신감마저 떨어져 교사의 교육활동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북돋우고 생활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힘든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과학습부진 해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교과 학습부진의 해소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높이고 나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가

저를 짓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본교에서는 『효율적인 주5일수업제 운영을 통한 교과학습부진학생 학습능력 신장』이라는 주제로 시범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학생들 스스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더 배우고 싶은 교과목을 개설하여, 토요일 수업일 정규 교육과정에 학습시간을 편성·운영하고, 토요일 수업일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사이버 상에서 교과학습이 연계 되도록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은 학교수업을 가정으로 연계하여 컴퓨터에 친숙한 학생들을 사이버 상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며, 특히 토요일수업을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교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정상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하여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범학교의 운영은 주5일수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교과학습 부진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교과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교과학습 부진학생 반을 조직하고,

둘째, 교과별 학습요소를 추출 재구성하여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을 구안하며,

셋째, 교과학습부진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있다.

본 시범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색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과제를 설정하였다.

운영과제 1 -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과학습부진학생 반을 조직한다.

가. 주5일수업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 연간수업일수 확보, 연간 수업시수의 확보, 연간 학교 행사, 토요일 수업일 교육과정 편성 운영

나. 교과학습부진학생 반 편성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근현대사 6개 과목

다. 교사연수 및 학부모 홍보 - 교사 연수, 교육과정 협의회, 학부모 홍보,

운영과제 2 - 교과별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재구성하고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을 구안한다.

가. 교과별 학습요소 추출 - 학생들에게 부족한 영역과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교과별 학습요소를 추출하여 교재 개발에 활용하였다.

나. 교과별 학습요소 재구성 - 교과별 학습요소 중 교과학습부진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취사선택하여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편리하도록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다. 교과별 학습자료 개발 - 학습지의 종류는 기본학습지, 발전학습지, 심화학습지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단계별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수준을 달리하여 제작하였다.

운영과제 3 - 교과학습부진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가. 토요일수업일 프로그램의 적용 - 토요일수업일 연간계획 수립, Study Group 조직, study group 별 또래 도우미 선정, 학습과제 해결

나. 토요일수업일 프로그램의 적용 - 토요일수업일 교과학습, 토요일수업일 학습방법 안내,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과제학습 해결, 토요일수업일 자기 주도적 학습활동 정보제공, 토요일수업일 자기주도적 학습활동

다. 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적용 - 개설교과 반 학생의 관리, 교과 성취도 향상을 위한 시상제, 학습 부진 원인 제거를 위한 상담활동, 내 버렸던 자아를 찾아서(‘길거리 특강’에서 나를 찾는다, ‘나에게 온 아침 편지’를 받고, 나를 필요로 하는 ‘정혜원’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5일수업제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으로 토요일수업일 3,4교시를 활용한 교과학습 부진반 운영은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의 학업 성취율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고 생활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토요일수업일 사이버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습관화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무의미하게 지내던 학생들이 보다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학생들은 학습의욕이 낮아서 교과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동안의 생활습관 때문에 자신감과 성취의지가 약해 교과학습 부진해소의 측면에서 볼 때 그 효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지는 못했으나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효율적인 주5일수업제 운영을 통한 교과학습부진학생 학습능력 신장』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지정 시범학교를 운영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효율적인 주5일수업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은 교과학습 부진해소를 위한 시간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나. 교과학습부진 반편성과 교과개설에 있어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운영하는 것은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의욕 향상과 교과부진 원인치료에 도움이 되었다.

다. 교과별 기본학습요소 중심의 학습지 제작 활용은 학습부진영역의 자기 주도적 학습과 교수 학습활동에 효과적이었다.

라. 토요일수업일 사이버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프로그램의 운영은 학습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 교과학습부진 해소는 학습과 생활전반에 걸쳐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바. 블렌디드 러닝은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학습프로그램으로 학습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전/문/가/초/대/석



김헌규
법무법인 서경 변호사

교사 체벌에 대한 법률적 검토



1. 머리말

대학입시 위주의 사교육 비중이 점점 커감에 따라 공교육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경시되는 풍조가 만연되고, 사회 여러 부문에 걸쳐 기존의 억압적이고도 폐쇄적인 질서가 자유화 바람을 타고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로 존중되어 오던 교사의 권위마저 심각하게 도전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던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체벌권 행사의 정당성 여부가 사회적인 논쟁거리로 등장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법정으로 이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됨으로써 많은 교사들이 체벌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사 체벌의 법적 허용 범위 등 법률상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정

초·중·고등학교의 징계에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보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며(동법 제20조 제3항), 학교의 장은 동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비록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학교장이 정하는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헌법재판소 2000.1.27.선고 99헌마481 결정).

3. 체벌의 위법성 기준

그러나 어떤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관련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 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1.5.28.선고 90다17972판결).

위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상세히 풀어 보면,

가. 체벌을 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교실 내에서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교실 내의 기물을 바로 잡으면서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교사가 자신의 인격이 무시당하였다는 다분히 감정적인 면에도 기인”하는 경우와 “지시에 불응하자 격한 감정에서”의 체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벌은 폭력의 성격을 띠므로 훈육의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체벌을 가하는 방법과 정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타일러 칠판에 손을 대고 옆드리게 하는 등의 자세를 취하게 하거나 학생이 서 있는 자세에서 체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다리, 둔부 등 안전한 부위를 골라서” 즉, 안전한 상태에서 체벌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그를 경계하고자 그 뺨을 두 번 가볍게 때렸고”의 정도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잘못된 체벌의 예를 들면, “체벌을 가한 방법이 막대기만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구둣발로 여러 번 차는 등 심히 비인격적, 비교육적인 방법에까지 이르고 있음”이나, “격한 감정에서 대결레자루를 높이 치켜들고 학생을 때리거나 휘두르다가” 등은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초등학생 5학년생을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한 다음 길이 50, 직경 3센티미터 가량의 나무 지휘봉으로” 체벌한 것도 방법과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 체벌을 가한 신체 부위 및 체벌로 인한 상처의 정도

잘못된 체벌의 예를 들면, 신체 부분 중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머리 부분을 막대기와 구둣발로 구타하거나 대결레자루로 어깨와 팔 머리 등을 구타해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긴 경우, 허리 부분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고, 상해의 정도가 심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평소 내포하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 이를 사전에 교사들이 알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라.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판례에 의하면 “개인적인 감정의 개입을 억제하여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체벌을 가하는 신체 부위와 그 정도, 방법 등에 대하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상해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4. 체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 방안 및 법적 결과

가. 1차적 수습 노력

체벌사고가 생겼을 때 먼저 학생을 병원에 데려가 학생에게 발생한 상처나 질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 학생과 학부모에게 체벌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형사사건화 될 경우

학부모가 반발하여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해당 교사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같은 반 학생) 등의 자유롭고 진정한 진술서, 그 내용에 당시 학생이 체벌 받게 된 이유와 체벌을 가한 방법 등이 들어간 진술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체벌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맞았는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춰 밝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벌이 폭력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사건화 되었을 경우 벌금, 금고, 징역 등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사가 구속되었을 경우 직위해제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공무원 결격사유) 교직에서 자동으로 직권 면직되며,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품위 손상이나 기타 사유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학생이 당한 물질적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나 부당한 요구나 협박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가 국가(사립인 경우 재단) 또는 해당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공무원인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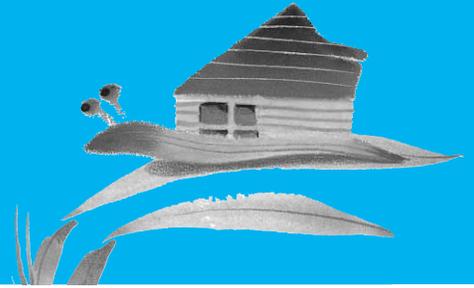
전/문/가/초/대/석



이 재 경

밀양 단산초등학교 교사 / 상담학 박사

교원의 정신건강(2)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다. 성인인 교사의 가치는 대부분 전통적으로 유교를 중시하는 윤리적 가치관을 따라서 그 기준이 정해졌다. 인간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기본적인 역할행동이 기대되고 여기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생활 문화적 환경적 가치는 성인과는 점차 다른 다양성을 보인다. 학생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적 상태까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자신은 중요하고 필요한 욕구와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 교원이나 학생들과 공유하거나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타인의 존재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억누르게 되므로 원만한 대인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점차 홀로 있게 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독과 사회적 소외감이나 정신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삶이 이루어지는 생활 속에서 나의 가치만큼 타인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서로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계를 위해서 타 교원과 학생들과의 상황과 입장을 고려하는 위치 전환이 필요하다.

교원들의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원이 다양한 인간관계(교원-교원, 교원-학생, 교원-학부모 등)를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교원들의 역할과 기대가 결정되며 행복감이나 자아성취감까지도 관련된다. 교원이 맺는 인간관계는 교원의 학교생활과 삶에 긍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 영향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 형성뿐만 아니라 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서로에게 즐거움과 격려, 위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조력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 그 자체가 삶에 스트레스, 갈등, 번뇌 등의 원천

이 된다. 이로 인하여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한 좌절감, 실패감, 문제의식 등을 넘겨주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관계가 비조력적인 관계로 진행되며, 결국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끊어지게 된다.

타 교원과 학생들과의 대인관계를 통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은 환경이나 교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집단속에서 타인과의 정신적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대에 맞는 행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집단 구성원으로 정당한 인정을 받게 되며, 그 지위와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고 정신건강을 위한 기반을 쌓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삶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함께 생활하는 타 교원과 학생들과의 교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타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교류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과 맑은 타인이 먼저 나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푸는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내가 타인에게 주는 만큼 그들도 나에게 지금, 혹은 나중에 주게 된다. 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격언이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타 교원과 학생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타 교원과 학생들을 배려하거나 그들의 입장과 감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 없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 것 만큼 타인의 모든 것을 존중해야만 관계가 심화되게 된다. 또한 타 교원과 학생들의 한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해야한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지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내 관점에서 타인을 수정하려 하거나 충고하려고 한다면 관계형성은 어려워지게 된다. 타인보다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훨씬 쉽고 편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yjkvision@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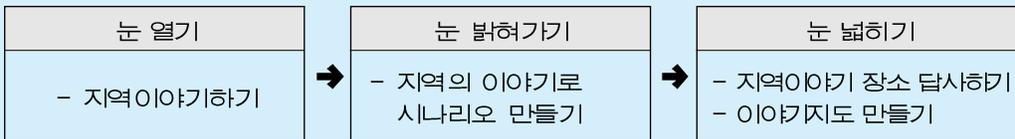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김연희
산청 경호중학교 교사

집을 지으려면 주춧돌부터 놓듯이, 교육도 그러할 것이다. 국어교육의 내용이 언어와 문학이므로, 지역 언어와 지역 문화가 그 주춧돌이다. 지역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학습에서 점차 표준어와 일반 문학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 국어교육의 순서이다. 그 순서가 바르게 꿰어질 때,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가며 당당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언어와 문학으로 국어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역의 이야기이다. 다음 표는 지역 이야기를 활용한 활동이다.



‘눈 열기’와 ‘눈 밝혀가기’는 수업 중 활동이며, ‘눈 넓히기’는 수업 후의 활동이다. 그 중, 도란도란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워가는 국어수업은 생각만 해도 신이 난다. 이야기꽃을 피우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는데, 학교 급별에 따라, 학생수에 따라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먼저, 수업 시작과 함께 순서를 정해두고 돌아가면서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바로 지역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경험한 이야기를 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하는 등의 이야기에 재미를 들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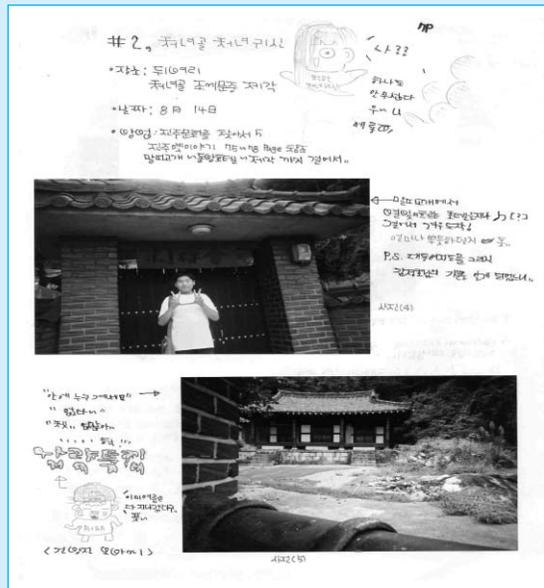
또 다른 방법은 특정한 날을 잡아서 한 시간 내내 순서대로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학생 수가 많은 학급에서는 자칫 딱딱한 분위기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반면 학생 수가 적은 학급에서는 둥글게 원을 만들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우리 학교는 농촌에 위치한 작은 학교여서 이 방법으로 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시간에 교사와 학생 모두가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순서를 정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이들의 얼굴을 둘러보면, 누구랄 것도 없이 아이들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음을 발견

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들이 쉽게 입을 열지 않을 수도 있고, 입을 연다 하더라도 교사가 원하는 바람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야기꾼으로 나서는 것이 좋다. 교사가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준비할 시간을 주면, 아이들도 반응을 보여주게 된다.

말하기의 한 갈래로서 이야기하기는 다른 말하기와 달리 문학적인 감수성과 상상력도 키울 수 있다. 더구나 지역의 이야기는 지역의 삶을 알게 하고, 지역 사람으로 자긍심도 가지게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위 표의 '눈 밝혀가기'에 제시한 것처럼 지역 이야기에서 알게 된 이야기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거나, 옛이야기의 빈칸을 상상력으로 매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수 있다. '눈 넓히기' 활동으로, 이야기 장소를 찾아가는 이야기 지도를 만들어보는 수행평가도 할 수 있다. 다음 사진은, 한 학생의 이야기 장소 답사기의 일부이다. 이야기 속 현장에서 사건을 재연해 보기도 하며 이야기 장소를 찾아가고 있다.



이 활동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게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알게 되니, 더 잘 보이고, 더 잘 보이니 애정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다. 지역이야기하기에서 시작한 국어교육은 지역 사회를 잘 알게 하고 나아가 우리 국어를 잘 쓰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협동학습으로 우리 수업을 개혁한다.

- 일제학습, 경쟁학습의 한계와 협동학습으로의 전환 -



김해 덕정초등학교 교사 안성진

현재 우리의 학교 문화나 수업 분위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일제학습과 경쟁학습의 영향 하에 놓여있다. 그러다보니 교사 중심, 지식 전달 중심의 수업으로 쉽게 흐르거나 학생 상호 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제학습과 경쟁학습 중심의 기존 수업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동학습으로 수업 방법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일제학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협동학습이다.

경쟁학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협동학습이다.

수업 방법의 혁신은 기존 일제학습과 경쟁학습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협동학습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가능한 것이다.

일제학습의 한계와 협동학습

지금까지 우리의 교실은 일제학습의 틀에 갇혀있다. 일제학습은 교사의 논리에 의하여 계획한 대로 일방적으로 가르쳐주기 위주의 수업으로 전개되므로

- ① 교사와 학습자와의 종적(수직적) 상호작용은 이루어졌지만, 학습자 상호간의 횡적(수평적) 상호작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② 개인차(학습도달도 · 학습방법 · 학습속도 등)가 보살펴지지 않는다.
- ③ 사고하고 판단하고 표현하는 등 학습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행동을 행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습자가 피동적으로 움직인다.
- ⑤ 듣기 · 보기 중심(여러 감각기관을 모두 가동하지 않는)으로 받아 배운다.
- ⑥ 잘하는 집단과 못하는 집단으로 양극화 분열되고, 고정화된다.

등등의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는 바, 이것이 일제학습의 일반적 문제점이다.

수업은 수업의 전(全)과정에서 학습자 각자가 부단히 사고하도록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 상호간에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학습자 전원을 학습의 능동적 주체로 변화하게 하여야 한다. 학습자 각자가 탐 흘리고 고뇌하며 탐구적으로 모색하는 과정(過程)을 소중히 하는 학습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학습자 전원이 스스로 찾아 배우는 과정을 즐기고, 학습목표를 성취한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제식 '묻고 답하기' 식의 형태나 교사 주도의 '퍼붓기'와 학생은 '받아먹기' 식의 형태의 학습에서 벗어나야 하며, 수업의 과정에서 학습자 상호간 상호작용에 의한 집단의 교육력(集團 教育力)이 발휘되는 학습 형태를 적용해야 한다.

협동학습은 학습문제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생각을 확립하고 있는 각자가 토의하고 토론하는 횡적 상호작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집단의 교육력이 발생하여 학습자 각자의 사고가 항상적으로 변용(向上的 變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우리의 수업이 일제학습 일변도를 지양하고 그와 함께 협동학습을 보다 더 많이 조직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경쟁학습의 한계와 협동학습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 우리 교육의 모습에 경쟁이 넘치고 있다. 우리 교실 수업의 모습에서도 경쟁이 넘쳐나고 있다.

교사의 발문에 답을 알고 있는 소수의 우수한 학생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다수의 학생은 학습에 자발적인 참여·사고·표현하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구경꾼에 머물러 있다.

교실속의 모든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지적 상호작용이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켜 자기수준의 성취감을 맛보고 배우고 익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수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다시 재편해야 한다. 그래서 수업 속에서 모든 아이들을 지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과 수업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바꿔야 한다. 경쟁이 효율과 수월성을 가져오며 경쟁력을 가져온다는 잘못된 믿음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어린이를 가르친다면서 '학력'과 '실력향상'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경쟁시키며 동시에 열등감, 소외감, 좌절을 가르쳤는지도 모른다(교사 자신은 못 느끼며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 여기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제교육성취평가(PISA) 비교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 뛰어난 학업성취 능력을 보이지만, 드러난 우리 교육의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로서, 학생들은 경쟁 속에서 성적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높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흥미와 동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못해 억지로 공부하여 얻은 결과가 아닌가 하고 염려된다.

진정한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협동을 통해서 길러진다. 서로 고립되어 다른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만 여긴 채 일방적인 지식 습득에만 매몰 되도록 훈련받는 기존 학습방법은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 개발을 도외시 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성패는 학교와 사회가 얼마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우리사회의 90%는 더불어 살아가는 협동적 삶이고, 겨우 10%가 경쟁 개별적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학교도 경쟁학습 구조에서 협동학습 구조로 바꾸어졌을 때 희망이 있다.

같은 물을 먹어도 젓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같은 내용이라도 협동학습 구조

에서 배우는 것과 경쟁학습 구조에서 배우는 것은 찻소와 뱀의 차이만큼 크다.

PISA에서 3회 연속 1위를 놓치지 않은 핀란드, 2007년 10월 방한했던 핀란드 교장협의회 피터 존슨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적어도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쟁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수한 학생끼리만 어울리게 한다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다. 경쟁은 스포츠에나 필요하지, 교육엔 필요없다.”

우리의 수업이 경쟁학습 일변도를 지양하고 그와 함께 협동학습을 보다 더 많이 조직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협동학습의 교수학적 의의

A라는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혼자서 생각하고 있을 때는 a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나 경험·상식의 한계 내에서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B라는 사람은 A보다 풍부한 배경지식·경험·상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같은 일에 대하여 A보다는 깊고 넓은 b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두 사람이 대화하게 되면 A는 B의 발표를 듣고 a와 b와를 관련지어 생각함으로써, 새로운 생각 C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공동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하여 자기 나름의 생각을 확립하고 있는 복수의 사람들이 마주보고 이야기 나눌 때, 사람들은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고,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이 부딪쳐 토론하게 됨으로써 혼자서 생각하는 것 보다 깊고 넓은 양질의 사고를 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나 결과에서 기쁨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의 성과도 학습하는 기쁨도 배가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 교육은 ‘접수’에 의한 교육, 즉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교육이었다. 요컨대 타인지향적 교육이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21세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답습해서는 안 된다.

21세기 화두는 인간의 ‘창의’다. 인간의 ‘사고’가 중요하다. 그런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종전의 일제 학습, 경쟁학습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사고하게 만들며, 그 생각을 다른 사람과 충분한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의 사고를 절차탁마(切磋琢磨)해 나갈 수 있는 학습 형태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 해답을 협동학습에서 찾을 수 있다.



방과후학교 운영 확산의 해



경남교육청 방과후학교 종합지원센터 장학사 김 옥 신

1. 방과후학교 운영의 발전기를 지나면서

학교를 통한 다양한 학습 및 보육을 통해 사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구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란 용어로 통합하여 추진해 온지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작년까지는 자유수강권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 보고, 농산어촌학교를 확대해서 시행도 해 보고, 또 초등 보육교실을 확대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2년간 추진하면서 운영 방법의 미숙, 변경, 혼란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교에서는 서로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겼으며, 많은 선생님들이 업무의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담당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앞서지만 방과후학교가 우리 교육을 보다 운택하게 할 수 있으며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믿음을 갖고 2008년도에 달라진 운영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2008년의 달라진 운영 방향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 운영과 수익자 부담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으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이끌어 왔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게 됨으로써 어느 때 보다도 지역의 교육공동체간의 협력적인 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행자부에서 종합부동산교부세를 지자체에 교부하면서 지역교육에 20%를 할당하도록 법제화되면서 지역교육현안(6%), 영어체험학습센터지원(10%), 초등 보육교실(4%)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우리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본다.

자유수강권은 작년의 도입에 이어 점차 정착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동지역에만 지원된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취합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자유수강권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이 때, 자유수강권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중심으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는데, 지원받는 학생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자유수강권의 활용에 대해서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 선택권의 확대로 우수 강사진 확보 및 프로그램 간 경쟁 촉진, 프로그램 연계 및 공동 운영등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알

차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은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초·중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원하지만 고등학교는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한다. 학교에서 운영 계획서를 받고 지역교육청에서 이를 취합하여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역교육청에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즉,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대상학교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저소득층학생을 지원하고, 감사비를 보전하며, 프로그램 운영비, 차량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소규모 농산어촌학교에서는 단독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학교를 하나의 학교군으로 구성하여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공동 운영하는 등 지역의 모든 여건을 활용하고 지자체와 협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교육청에서 206개 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 2천만원 씩을 지원한다.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설비,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교재와 교구를 준비하여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보육을 도울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더욱이 토요일업일이나 방학 중에도 운영하여 보육의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 신설하는 교실은 지자체에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금과 별도의 5천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초등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너무 학습위주로 가는 경향이 있어 어린 아동들의 참여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즐겁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오후를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대학생 멘토링은 가장 인기있는 종목이다.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인성지도 등을 통하여 계층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 멘토링은 4개 지역교육청(창원, 마산, 진주, 김해)에서 운영하려고 한다. 주 2시간을 기준으로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대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사회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실시하는 귀향멘토링은 도교육청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 방과후학교는 교육과정의 보완

올해부터는 모든 운영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학교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창의적이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과후학교의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교육청에서도 가능하면 어떤 지침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 공동체의 의사를 수렴하여 학교장 중심운영 체제로 다양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학교간, 지역주민간, 지역기업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학생들이 즐겁게 다양한 교육을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방과후학교는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하고,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학생들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도 있다.

교육과정이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면, 방과후학교는 수월성을 추구하고 있다.

보편성과 수월성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교육의 양대 수레바퀴이며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로운 지향점 입에 틀림없을 것이다.



교장 온도석



▶ 우리에게도 꿈이란 게 있나요?

안의고등학교!

그다지 내세울 만한 교명은 아니다. 한때(1980년대) 전교생 800여 명을 자랑하던 지역 명문고등학교가 이제는 학생이라야 겨우 6학년 98명이 전부. 인근 중학생 중에서 똑똑한 학생은 다 걸러지고,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진한 성적 때문에 이 학교 외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이들이, 오고 싶어 오는 학교가 아니라 단지 졸업하기 위해 모이는 학교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오늘 이 학교가 가진 이름값이다.

그러나 여느 도회 학생들과 다르지 않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싶은 젊은 영혼들은 외친다. '우리도 꿈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 젊은 영혼들에게 꿈을!

꿈을 모르는 젊은이에게 꿈꾸는 법을 알려주고자 나선 이가 바로 온도석 교장이다. 2006년 9월 1일에 부임한 온도석 교장은 한때의 영화로운 그늘 아래서 황폐해져가는 고향의 교육환경을 쇄신하고, 꿈을 모르는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주고자 이 학교를 찾아 왔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준 이는 황인규 교감과 17명의 교사.

『방향하는 젊은이에게 꿈을 심어주자! 그리고 살 길을 닦아주자!』

취임식에서의 첫 목소리다. 부모들조차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고 했다. 그러면 안의고 학생에게 알맞은 《꿈꾸기》는 무엇일까?

우리 학생들은 성적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자신을 비하한다. 공부가 자신을 평가하는 전부인 양 힘이 빠지

고 만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것은 이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도시처럼 공부할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농촌 환경, 먹고 살기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부모 탓도 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자 했다. 며칠을 두고 숙의하고, 토론한 결과는 바람직한 진로를 열어주는 일이었다. 바로 그것, '진로교육의 필요성'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며 또 잘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 자신만의 능력을 찾아내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 우리가 먼저 진로교육 전문가가 되자.

진로교육이란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연구하고 무엇을 접목해야 할까?

우리 교사들이 고민하고 고뇌하여 얻은 바람직한 진로교육이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진로를 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

'진로 체험실을 운영하여 자신의 특기·적성에 맞는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진로 체험실에 적성 탐색 검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일' 등이었다.

▶ 너희에게 맞는 직업유형을 찾아보자.

본교의 학생들은 학습능력이 비교적 낮다.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여러 분야에 걸쳐 적성과 흥미가 높게 나타나고,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은 모든 분야에서 낮은 수치가 나타나는 기존의 진로검사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마땅한 특기나 적성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경우 Holland의 직업성격 유형 검사가 유용하고, 또 여섯 가지 직업성격 유형론에 의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본교에서는 '체험실 운영을 통한 맞춤형 진로지도'로 2007년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신명나는 학교생활을 만들어 주며, 궁극적으로는 특기·적성과 직업(일)을 연계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다양한 직업 유형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숨겨진 '자신만의 진주'를 찾아내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 교사가 전문가가 되어야 했다.

2006년 10월, 교사가 먼저 바뀌기 시작했다. 사그라져 가는 시골 학교와 꿈도 희망도 없이 자라나는 제자들이 안쓰러워 시작할 일이지만 처음에는 교사들도 두려웠다. 홀랜드 직업탐색 이론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각 유형별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과연 이론대로 잘 될 것인지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다.

☞ Holland 진로탐색이란?

진로심리학자인 John Holland의 진로이론에 따라 세상의 모든 직업들과 사람들의 직업적 적성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개인의 능력, 흥미, 성격 및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어떤 유형의 직업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성에 맞고, 또 인생을 만족스럽게 가꿀 수 있는지를 탐색해 보는 것

하지만 수차례의 연수를 통해 이론적인 무장을 했으며, 같은 유형의 교사들끼리 모여 자기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이 활동의 취지와 가능성을 이해시켰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와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었다.

전교 6학년 98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소규모 농촌학교로서 체험활동을 하기에 우선 학급 수가 적당하고,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체험실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실과 유휴교실도 있었다. 학생들은 대체로 무기력하고, 자신감이 없으며 학습의욕도 떨어져 있었다. 성격검사 결과 학생들은 외향적 성격(42.7%)보다 내향적 성격(52.3%)이 많았는데, 어떤 특정반은 80% 가량이 내향적 성격으로 나타났다.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지원대상자가 전교생의 92%나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년소녀 가장, 고령의 조부모 양육, 한 부모 가정(20.62%)이 많은 편이다.

▶ 준비에서 적용으로

먼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 사이에 학생, 학부모, 교사에 대한 연수를 통해 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체험활동에 대한 꾸준한 홍보로 지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높아졌다. 그러나 예산 확보라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학교장의 집념어린 노력으로 결국 경상남도 교육청 및 함양군 장학회의 지원을 얻어 기존의 특별실과 유휴교실을 재정비하여 9실의 체험실을 구비하고, 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체험활동 시간은, 기존 특별활동 1시간 외에 전 교사들의 이해와 협조로 방과 후 활동 1시간을 더하여 주 1회 2시간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교과활동 시간에도 교과별 월 2회 실철·실기 및 견학 활동을 하도록 계획하고, 각 유형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월 1회 초청 강연을 실시함으로써 간접경험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또 MBTI 성격검사, Holland 진로탐색검사, 체험활동 보고서 등을 누가 기록한 진로탐색 개인별 파일을 동아리 활동 및 맞춤형 진로지도 자료로 활용하였다.

순환 체험활동 프로그램

- 실재형(R형) - 요리, 창작목공, 자동차기관 분해, 조립, 피부·발관리, 채소·원에
- 탐구형(I형) - 과학실험, 현미경 관찰, 물리실험, 전기·전자 실습, 토질실험
- 예술형(A형) - 기타연주, 댄스, 연극, 시각디자인, T셔츠제작
- 사회형(S형) - 또래상담, 응급처치, 장애인 체험, 복지시설, 봉사활동, 미술치료
- 기업형(E형) - 선거유세, C·F제작, 신문 제작, 업무처리흐름도, 모의주식 투자
- 관습형(C형) - 공문서·자기소개서 작성, 인터넷 콘텐츠, 파워포인트 제작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은 직업적성 탐색 검사 후 종목을 선정하였다.

- 실재형 - 태권도반, 요리반, 목공반, 채소,원예반, 도자기반
- 탐구형 - 생물반, 환경반, 실험반, 해외유학반, 지구과학반
- 예술형 - 연극반, 기타반, 풍물반, 컴퓨터그래픽반, 음악(난타, 합창)반
- 사회형 - 또래상담반, 봉사반, 미술치료반, 수화반, 토론반
- 기업형 - 신문반, 법률반, 상업반, CEO연구반, 정치반
- 관습형 - 파워포인트반, 정보처리반, 사서반, 그래픽반, 회계반

- ☆ 거창전문대학 - 자동차기계 과(실재형), 뷰티디자인과(실재형), 간호과(사회형), 토목과 (탐구형), 컴퓨터 정보시스템과(관습형), e-비즈니스과(기업형)
- ☆ 한국폴리텍Ⅶ 거창대학 - 산업디자인예술형(예술형), 전기학과(탐구형), 자동차 계열(실재형)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연극분야(예술형)
- ☆ 이레 소망의 집 - 사회복지시설(사회형)

교과활동 시간에도 교과별 월 2회 정도의 체험활동(실험, 실기, 견학...)을 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월 1회의 초청강연을 실시하였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다. 강연 내용으로는 ‘의사의 세계(탐구형)’,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실재형)’, ‘경영인의 자세(기업형)’, 이렇게 하자(예술형)’ 등이 있다.

▶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답다.

“꿈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무엇을 제일 좋아하느냐?”, “제일 잘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한결같이 “없어요.”,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었다. “이거 해보자”, “저거 해 볼래?”라고 하면 한결같이 “싫어요”, “귀찮아요”라고 하던 아이들이었다.

학교장을 위시하여 모든 교사가 하나로 뭉쳐 학교 분위기를 바꾸고, 학생들의 의식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두발 자율화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질책보다는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길러 주었다.

반신반의하던 학생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교시각이 되어도 집에 가기보다는 체험실로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인 <이레 소망의 집>에 간 학생은 울면서 돌아온다. 4년제 대학만을 고집하던 학생도 줄었다. 이제는 진정한 나를 찾게 되었다. 이 기회를 통해 자존감을 높여 즐거운 학교·학습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나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바뀐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어찌 보면 홀랜드 직업 유형에 따른 진로지도는 ‘공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공부가 하고 싶은 아이들’이 생겨났다. 자신에게도 공부에 소질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요구로 국어, 영어, 수학 야간 강좌를 개설했다.

정보처리과 학생들은 학과에 맞게 정보화 관련 자격증을 따겠다고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자격증 취득반 야간 강좌를 듣기 위해 밤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하여 원어민 화상 영어회화반, 태권도 단증 취득반이 야간에 개설되었다. 야간 강좌에는 출석을 체크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원해서 듣는 수업이라 결석이 없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회의 혜택으로부터 늘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배푸는 법을 모르던 아이들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장애까지 가진 정○○ 학생이 난치병에 걸려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학생회를 열어 모금을 하였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90% 이상이 교육비 지원 대상이다. 그들이 낸 몇백 원, 몇천 원으로 학교가 참 따뜻해졌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 2008년, 이제는 더 높이 뛰어야 할 시간

아이들은 1년 내내 즐겁게 열심히 달렸다. 프로그램에 맞추어 책꽂이를 만들고, 요리를 하고, 선거 유세를 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고, 채소밭도 가꾸고, 기타를 치고, 복을 두드렸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했다. 그 결과를 선보이던 시범학교 보고회 날, 우리들의 작품으로 가득찼던 가을 교정을 우리는 오래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여름방학도 없이 땀흘리며 연습했던 연극반은 '거창 학생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연기상', '인기상'을 휩쓸어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였다.

또 하나, 본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다. 본교는 한 학년에 두 계열 56명이 정원이지만, 늘 절반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런데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예년의 두 배 이상이 지원을 해서 정원을 넘겼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작용했지만, 인근 지역민의 본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결과로 해석되어 우리의 보람은 배가되었다.

첫 걸음은 이미 내딛었다. 교사가 이끌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밀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실패'는 꿈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의 결과물이므로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는 그릇이다. 이 그릇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달려왔다. 때로는 힘겨워 지칠 때도 있었지만 '꿈'을 가지고 달려 왔다.

부지런히 국어, 영어, 수학 가르쳐서 좋은 대학 보낼 생각은 안하고 무슨 체험활동이냐고 비아냥거리던 학부모들도 이제는 더없는 지지자가 되었다. 자신들이 학창시절에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체험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자원봉사를 자청하기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딸기하우스를 체험장으로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3단계(3년 과정)로 구성되었다. 1단계는 직업 유형별 순환 체험활동을 하고, 2단계는 적성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하며, 3단계는 심화 동아리활동을 통한 맞춤형 진로선택으로 계획되었으나 올해



는 시작이어서 2,3학년이 1학년과 함께 1단계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변형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8학년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정착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성과 연관된 학과 또는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심화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의 시행이 본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각급학교로 확산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공부를 못하면 전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인식되는 작금의 세태에서, 아이들이 저마다의 '달란트'를 찾아내어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들의 미래도 행복하니까.





변화하는 시대에 준비와 대책을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 정 호 종

몹시도 춥던 겨울이 지나가면 새로운 희망으로 부푼 봄이 다가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 것처럼 인간도 자연과 같이 진화하는 존재입니다.

교직의 첫 부임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한 것이 엇그제 같이 생생한데 장학월보 지면에 교직을 떠나는 소회(所懷)를 적으라는 편집자의 의뢰를 받고 지나온 교직생활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평생 외길 교직생활,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큰 과오 없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함께 한 분들의 덕분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아울러 여러 선배, 동료, 후배 선생님들을 만나 친교를 가질 수 있었고, 해마다 새로운 제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들은 제 인생에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교직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입문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꿈을 키우고 펼치도록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일, 부족하고 못 다한 일들만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교직을 떠나는 사람의 작은 아쉬움일까요.

재물은 없으면 불편하지만 많으면 간수하기 어렵고, 명예는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있을수록 돋보이고, 건강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야 될 것은 건강이고 명예와 권위를 귀하게 보존해야 하는 것이니, 재물은 구차하지 않을 만큼 가지고 살면서 명예와 권위를 소중히 하되 그 명예와 권위를 앞세워 뽐내지 않고 등 뒤에 감추고 가는 그런 사람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까 자부해 봅니다.

역사학자 헤겔은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는 황혼에 나래를 편다.’고 탄식하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난 뒤에 여하히 해박한 사후 처방을 깨닫는다 해도 때는 늦을 것이니 우리 교육계는 동지 여러분들의 총명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는 사회적인 변화의 물결은 감히 충격적입니다.

학교, 학생, 선생님, 학부모 등 교육계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되고 있고, 혁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자연은 변화에 본능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환경의 변화는 준비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끊임없는 학습,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이 필요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너는 생명을 아끼느냐? 그러면 너의 시간을 아껴 써라. 너의 생명은 너의 시간으로 된 까닭에 5분간의 허비는 5분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말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였던 B. 프랭크린의 좌우명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는 장수는 결코 단순한 생명의 시간적 길이가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고, 많이 성취하는 생활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이 허락하지 않기에 지나온 일들을 모두 회고할 수는 없습디만, 공적은 기억에 없고, 실수만 생각이 납니다. 인간이기에 정년까지 일한다는 것은 영광이겠지만 실수와 과오의 연속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공사 간에 저의 부덕과 무능으로 여러분에게 진 빚, 저의 모든 허물과 실수로 인해 상처와 아픔을 드렸던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평생을 교직에 있었던 저의 마지막 감회로는 인생행로의 다양한 선택에서 교직은 평생을 맡겨볼 정도로 큰 가치가 있다는 것과 다양한 삶의 최고의 가치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직을 떠난 후에도 저는 고장을 지키면서 저를 아껴주시고 베풀어주신 따뜻한 정을 가슴 깊이 오래 간직하며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 경남교육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큰 가치를 창조해 가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며,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선배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신 교육동료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후배와 제자들에게도 고마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별을 품은 한별

창원한별유치원 학부모 김 나 영

10년 전 내가 아가씨였을 때 출근길 버스 창밖으로 한별유치원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때는 나와 인연이 있을 줄 모르고 그냥 '이런 유치원도 있네' 하며 단순한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그 후로는 잊고 있었는데 한별유치원은 작년 우리 가족이 6살이 되려고 하는 하빈이와 첫 이사를 하면서 생긴 유치원 문제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문제! 이것은 우리 가족에겐 정말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2년 동안이나 다닌 어린이집을 옮기려고 하지도, 이사도 가려 하지 않는 하빈이, 더군다나 늦게야 대학생이 된 엄마 때문에 종일반에 다녀야 하는 하빈이를 어디에 보내야할 지 정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접수를 하러 와보니 내가 옛날에 차 창밖으로 보았던 그 유치원이었지 뭐니까? 그렇게 시작된 한별과의 인연은 계속해서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여느 유치원과 비교도 안 되는 넓은 운동장과 잔디밭, 동물원, 넓은 교실, 넓은 화장실, 교실사이에 있는 자료실이나 넓은 식당 같은 시설 때문에 놀랐습니다. 유아를 위해, 교사를 위해 정말 마음잡고 최선을 다해 지은 건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넓은 운동장과 잔디밭을 최고로 치더군요. 하빈이도 운동장에서 노는 것이 제일 재미있다고 수시로 말하곤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은 두 번째 놀라움에 미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바로 이 모든 것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간에는 "공립교사는..." 하면서 말들이 많지만 한별선생님들을 만나고는 그런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공립교사는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이들에 대한 열성이 눈에 보였습니다.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깊이 있는 노력을 하므로 백조의 다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를 보내 보니 선생님을 향한 믿음으로 유치원에 대한 걱정, 뉴스거리가 되어 나오는 안 좋은 사건들은 모두 나오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을 뛰어 놀게 하는 것에서 만족하실 만도 한데 뒷산으로 등산까지 다니시는 모습(실제로 주말에 엄마들이 아이들과 다녀왔는데 쉽지 않은 코스더군요)뿐만 아니라 행사를 진행할 때도 아이들을 '차렷'이나 '손 허리' 자세로 있게 하지도 않고 '함축이'로 만들지 않는데도 자연스러운 질서가 묻어 나오는 모습은 실로 감동이었습니다. 아마도 저 역시 현재 유아교육과 3학년이었기에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더욱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놀라움은 바로 급식입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온 바도 있지만 급식 모니터 링을 하면서 식품을 검수하고 조리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맛난 음식을 먹어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원감님, 선생님들과 함께 꼭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식당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좋은 재료와 청결로 맛난 점심, 간식 준비해주는 영양사님, 조리사님과 아주머니들을 급

식 모니터링에서 만나 뵙고 나니 종일반 엄마로서 어깨 위의 짐 하나 내려놓았답니다.
그리고 조석으로 뵙는 기사아저씨의 친절하시고 여유로운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이분들과 다른 한별님들 모두 모두에게 저절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른 날보다 일찍 일이 끝나서 하빈이를 데리러 갔었는데 다른 반 아이들이 푸르고 푸른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 혹은 축구를 하고 일부는 선생님과 긴 줄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위 한 무리가 엉덩이를 뒤뚱뒤뚱 거리며 지나가고 기사아저씨는 호스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뿜으며 거위 집을 청소해주고 계시더군요. 창문 안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재잘거리는 소리가 넘어 나오는데 마치 꿈속 동화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풍경을 한별유치원,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볼 수 있다니 바람도 넋을 잃고 잠시 멍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분들의 마음이 모이고 사랑이 쌓여서 우리 하빈이가 새로운 집에도 한별유치원에도 적응 잘하고 더 의젓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빈이는 또래에 비해 체격이 커서 얼핏 보면 무뚝뚝하고 어른스런 남자아이로 보이지만 사실 겁도 많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받아 울기도 하는 마음 약한 구석이 있는 아이여서 항상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한별유치원에 보내면서 점점 그런 걱정에서도 멀어지고 하빈이가 즐겁고 재미있는 유치원생활을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모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런 기억들이 모여 하빈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삶의 힘이 되어 주겠지 하는 기대마저 풀어 봅니다. 하빈이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빛나는 샛별 같은 우리 아이들이 2008년도 한별의 품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기대되어 엄마인 저까지도 행복해집니다. 다시 한번 한별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날 포마 이순신

경남과학고등학교 1학년 장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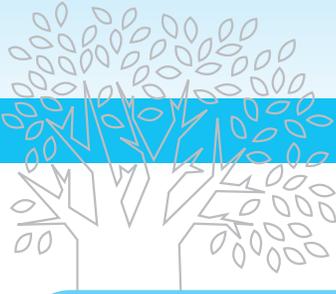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새 학년이나 새 학교, 새 환경에서 시작할 때마다 던져지던, 그때마다 망설임 없이 답할 수 있었던 질문이다. 여해 이순신, 많은 전투에서 전승을 거둬 나라를 지키신, 휘하 군사들의 신상을 하나하나 챙기시고 그들과 항상 함께하신,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이 임금의 명이라도 따르지 않던 바로 그분의 성함 세 글자가 그 물음의 변함없는 답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처음으로 접한 위인전기의 주인공이었고, 그분에 관한 책들이 내 책장에 수두룩했다. 조립형 거북선 모형이 내 방을 채웠던 적도 있었으며 어쩌다가 역사 시간에 그분에 관한 내용과 질문이 나오면 신이 나서 대답하기도 했고 생일이 장군과 같음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었다. 때로는 장군을 모델 삼아 그 깊은 생각과 성품을 닮고자 꾸준히 노력을 했었다.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만약 장군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 본 적도 비일비재하다. 그렇게 장군님께 빠져 있다가 그분처럼 머리를 쓴답시고 어설픈게 따라하여 엉뚱한 결과를 만든 일이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나는 여러 아이에게 둘러싸여 열심히 이순신 장군의 걸작인 학익진에 대해 설명하고 그 후 아이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었다. 때는 전쟁 체험 및 오락시간으로, 일주일간의 수련활동 후 서로 헤어지기 전 당시 전쟁 드라마가 인기 있던 때여서 레크리에이션을 겸하여 가진 시간이었다. 총 세 팀으로 나누어 각 팀의 왕을 정하고 그 왕을 목표로 하는 놀이였다. 나는 그 수련회에서 반장을 맡았으므로 장군을 하게 되었는데, 왕을 잡으러 가기 전에 잡아야 할 졸병들을 섬멸하기 위한 작전으로 학익진을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음에 열은 미소만 때우를 뿐이나, 나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했었다. 이곳저곳 숨기 좋은 곳을 찾아 적보다 먼저 숨어 있다가 다른 그룹이 적을 유인하여 깊숙이 들어오면 일시 공격하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 놀이는 활이나 포가 아닌 검으로 하는 것이었고, 아이들이 전락대로 따라줄 훈련도 받지 않은 것이 그 옛날의 한산도 대첩과 달랐다. 결국은 덩치 크고 빠른 아이들이 많은 한 팀이 이기게 되었고, 그제야 그저 놀이일 뿐인 활동에 이겨보겠다고 주름잡았다는 것을 깨달아 부끄러움에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지금과 그 옛날 전쟁 당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옛것을 그대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학교 체육대회 등에서 비슷한 상황을 몇 번 더 연출하다가 한참 후에야 그것을 받아들이고 옛것보다는 좀 더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게 되었다. 더불어 학익진이라는 겹질의 화려함만 보고 그대로 쓰려 한 나와는 반대로 여러 시행착오와 긴 시간 동안의 고민, 고난을 거쳐 빈속을 채워가며 하나의 승리를 이룬 장군님을 예전과는 달리 내 실패를 통해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멋있는 장군을 따라하다 창피를 당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상기되지만 내가 장군님같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던, 아니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어릴 때를 생각하다가, 자신 없고 힘없는 지금의 나를 보면 그 때가 그림고 훈훈해 진다.



몰입

황능문 저 - 서울 : 랜덤하우스코리아(2007. 12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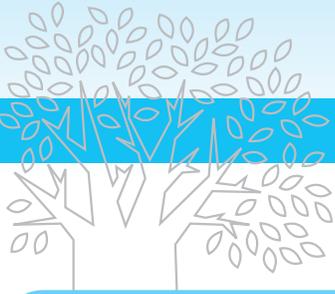
- '나노'재료공학 교수의 7년 몰입 체험기
 '느리되 깊고 즐거운 생각으로 행복 찾아라'
 『몰입 :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은 '몰입'의 위대함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책으로, 몰입의 개념과 필요성부터 몰입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하였다. 저자는 현대는 Work Hard가 아니라 Think Hard의 시대임을 강조하며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은 잠재력을 일깨우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먼저 행복과 성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일에 미치지 말고 생각에 미치기'를 제시한다. 그런 다음 왜 몰입적 사고를 해야 하는지를 명쾌히 설명하고, 어떻게 몰입으로 천재성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미래형 자녀교육법

박옥춘 저 - 서울 : 예담, (2006. 12 발행)

- 미국 교육과학원에서 교육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책임 관장하는 세계적인 교육학자 박옥춘 박사가 공부와 인생 모두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기 위한 부모의 역할을 일러주는 책이다. 두 자녀를 미 법무부 고문변호사와 국제개발 싱크탱크의 연구원으로 키워낸 아버지가기도 한 저자가 학문적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학습 방법과 생활 태도, 이를 제대로 지원해주는 부모의 지혜를 담았다. 이 책은 부모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나친 기대와 의욕만 앞설 뿐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현명한 조언자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조선이다

이한저 / 서울: 청아출판, (2007. 12 발행)

- 셋째아들로 권력기반 없이 왕위 올라, 해박한 지식·열린 귀로 ‘선량한 독재’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룬 세종대왕의 업적을 살펴보는 책이다. 지금 우리가 조선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들은 대부분 세종의 시대에 만들어졌다. 개성 강한 신하들을 거느린 왕이었던 세종은 그들의 불평불만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학식을 지닌 군주였으며, 그 풍부한 학식으로 인재를 활용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책은 세종과 여러 신하들과의 관계를 통해 세종의 업적을 되짚어보며, 세종의 성격과 리더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실천을 담보로 한 선량한 독재자 ‘세종’의 결단과 인내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연습해도 좋을 일이다.



아이의 손을 놓지 마라

엘고등 뉴펠드, 가보 마테 공저 / 이승희 유품 / 서울, 북섬(2007. 11 발행)

-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는 바쁜 부모들 때문에 서로에게 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책. 이런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에게 대신 애착을 갖고, 언제 자신을 비난할지 모르는 또래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초연함’에 길들여진다고 한다. 아동심리학자인 지은이는 이런 아이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배움에 대한 열정을 표현할 수 없어 호기심을 키우거나 창조성을 기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해결책은 부모와 아이 사이를 되돌리는 것.

교원지상갤러리



언제부턴가 **쬼에** 집착한다

쬼이 주는 내 안의 세계와 바깥 세계와의 구분이 좋았기에..
 쬼 밖으로 보여지는 풍경에는 많은 우리네 이야기가 담겨있다
 내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는 하나의 숨겨진 의미를 담고서
 다 채우지 말고 조금은 남겨 두어
 그냥 무엇인가가 익어가듯이 정들어 갔으면 좋겠다
 남겨진 공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보고 싶은 때가 있기에..

오늘도 쬼을 연다.
 기억의 공간에 내 삶의 영상을 담기 위해..



- 현) 마산 삼진고등학교 교사
-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 현) 경남 여성 작가회
- 2000 21세기 작가 로마국제전(로마)
- 2004 1회 개인전(성산아트홀)
- 2006 사상 갤러리 초대전(부산)

이경애



「학생이 행복한 교육
경상남도교육청이 만들어 갑니다.」

<http://www.gne.go.kr>